

사·부·대·중

상근기와 하근기

지난 11월은 그 어느 달보다 불교문화 행사가 풍성한 달이었다. 그 가운데 태고 보우 스님 탄신 7백 주년, 대각국사 의천 스님 열반 9백주기 학술행사가 열렸다. 주지하다시피 보우 스님은 임제선법을 석속창공에게 직접 전수받은 조계종 법통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고, 의천스님은 고려 천태종을 개창하신 분이다. 두 스님을 종조로 모신 해당 종단에서 두 스님의 선양을 위한 각 행사를 주최했다. 물론 행사를 어느 종단에서 개최하느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큰스님의 구법정신과 대중교화에 종단이 따로 있겠는가. 그런데 유감인 것은 예의 학술행사가 그렇듯 예전과 비슷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물론 한 시대의 인물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조명하는 한계를 갖고 있으니 달리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그분들의 화해중생, 애민선수의 면을 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태양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은 자기 등 뒤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법이다.



도각스님 (동국대 강사, 불교사)

양지와 음지가 들어와 닮아 닮아 부처와 중생이 닮아 닮아 하지 않는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세모를 눈 앞에 두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종단의 규모가 큰 만큼 전법의 방향도, 대 사회봉사도 결맞은 수준에 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다.

'불교는 상근기 아니면 하근기가 믿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잘못 하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다. 주위에는 우리의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다. 상구보리 화해중생이라고 부르지만 이상일 뿐 우리네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선대 고승들이 왕실이나 귀족들의 귀의만을 받았으며 동료 승려에게만 덕화가 미쳤겠는가. 크나큰 사상 못지 않게 대중의 아픔을 같이하는 실천공행의 삶이 없었으면 과연 오늘에까지 그 정신이 이어져 왔겠는가. 우리를 곁에 큰 스승이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작은 일화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며 난세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느꼈으면 한다.

# 전자 사천왕이 '사찰안전' 지킨다

## 조계종, 방법·방화업체 5곳 선정

### 내년 4월까지 무인경비시스템 의무화

'더 이상 눈뜨고 앉아 당할 수는 없다.' 해마다 줄지 않는 불교문화재 도난에 시달리던 조계종이 드디어 방법 시설 강화에 나섰다. 변변한 경비시설이나 비상벨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사찰에 무인 경비 시스템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회는 최근 종단 소속 사찰에 방법·방화 감지시설을 설치할 경비업체 5곳을 선정, 공고했다. 조계종 소속 2000여 사찰은 지난 7월 제정, 공포된 '방법·방화에 관한 령'에 따라 이 5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을 선정, 내년 4월까지 방법·방화 감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방법·방화 감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성보 도난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찰 주지는 승려법(47조 1호, 48조 11호, 51조 7호)에 따라 중과실 또는 고의 책임을 물어 징계에 회부된다. 성보를 도난 당한 사찰의 주지에게는 면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승려법으로 규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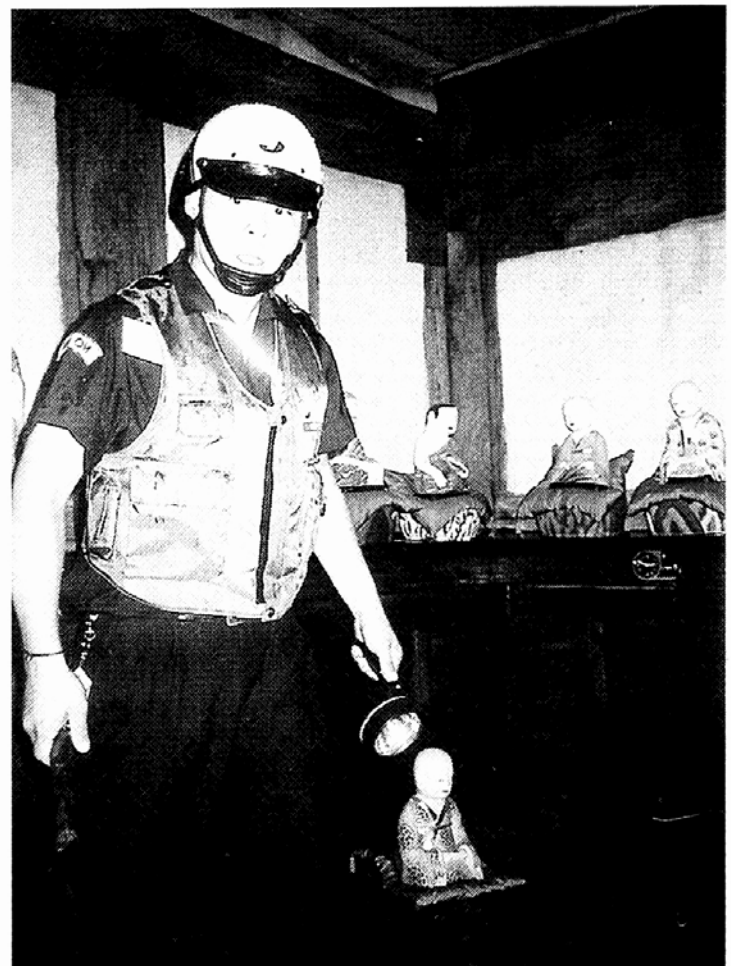
◆어떻게 선정했나=총장 실태 조사 등 2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친 조계종 총무원회는 올 7월 10일 '방법·방화에 관한 령'을 제정, 공포했다. 과다 경장을 막고 사찰에 적합한 방법·방화 구축을 위해 7월 23일 방법·방화업체를 공개 모집해 에스원, 캡스 등 7개 업체를 선정했다. 8월에는 사찰에 적합한 방법·방화 구축을 위해 도 단위 8개 시범사찰에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했다. 8월 말 모의 도난훈련 결과 등을 종합해 에스원, 캡스, 에스케이, 현대안전공사, 세파치서술시, 고려정보통신 등 5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사찰이 총무원에서 인증한 업체를 통해 방법·방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월 25%의 용역료 할인과 보험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내년 4월까지 사찰이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무인 경비 시스템이다. 대웅전 등 전각 내부에 설치하는 것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있다.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잠금 장치는 가장 기본이다. 문이나 창 등 열고 닫는 장소에 설치해서 침입자를 감지하는 방법 센서도 방법 감지시설에서는

기본이다. 온도 차이에 의해 내부 침입 여부를 식별하는 열 감지기도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 방화나 불상 등 분리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성보에는 분리 감지 장치나 추적기 등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방법·방화'에 관한 '령'은 소속 사찰을 사격에 따라 네 단계로 분류해 설치



◇지난 8월 구례 화엄사에서 있는 모의 방법 훈련에서 경비업체가 무인 경비업체 직원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어떻게 운영되나=침입상황이 발생하면 경비업체와 함께 방법 감지시설의 중앙 관제실로 상황이 접수된다. 관제실에서는 사찰 관리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도 침입 상황을 알리게 된다. 문화재가 있는 사찰의 경우 지난 9월 출범한 우리 문화재

## 인증업체서 시설설치

### 월 25% 용역료 할인

지킴이 담당 경찰과 비상 연락망이 설치돼 있어, 즉각 출동하게 돼 있다.

'방법·방화에 관한 령'에 따르면 중앙 교무기관과 교구본사, 사찰의 주지는 방법·방화 관리자를 임명해야 하며 교구본사는 년 1회 이상 방법·방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비용=총무원회는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방법 시스템은 시범 운용과 모의 테스트 등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해 규모가 작은 사찰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라'에 속하는 모든 사찰이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잠금장치, 열 감지기, 자석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데는 1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무원회는 문화재청 등과 협의, 경비 장치 설치에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원주 송광사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보안 장치를 설치한 예가 있다.

◆문제점=8개 시범 사찰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실시했던 모의 방법 훈련 결과는 일단 만족스러웠다. 경비업체의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수사는 합점점을 받았다. 하지만 새벽 예불을 위해 방법·방화 감지 시설을 해제하는 새벽 2시부터 새벽 예불이 끝나는 새벽 4시 사이가 취약 시간으로 나타났다. 모의 훈련 당시 실제로 한 사찰에서는 경비원이 방법시설을 해제하고 다른 전각의 문을 열기 위해 이동한 사이 도둑 침투 요원이 성보 한 점을 훔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권형진 기자 jny@buddhapa.com

## 목탁소리

### 김재경 (취재1부장)

비구 스님에 대한 비구니 스님의 8가지 공경법을 명시한 팔경법(八敬法)은 여성 불자들을 억압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최근 한국 불교계에서는 '팔경법은 불설(佛說)이므로 불제자들은 마땅히 이를 따라야 한다'는 보수적인 비구 스님들과 '팔경법은 후세의 삽입이며 불설이 아니라'는 여성 불교학자들 간의 견해가 맞서고 있다.

80년대 초 불교계는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는 동국대 이영자 교수의 발언이 충격적일 정도로 여성주의적 시각이 전무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잇달아 논문을 통해 '팔경법'의 비불설과 종단내 선거권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 내 불교여성개발원을 비롯 여성불교연합회, 불교여성회 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한국비구니연구소는 비구니사 정립을 위한 학술사업에 나서고 있다. 불교 여성운동은 아

## 종교계의 성차별

직 새책이 돌아오는 시기에 해당하지만, 종교계의 성차별을 극복하려는 여성운동과 궤를 같이하면서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간 한국 종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를 막론하고 남녀의 성역할을 구분한 유교문화 등의 영향으로 교리 및 경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관습과 문화적 이유로 여성 성직자 및 여신도들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존재해 왔다.

그러나, 늦은갑은 있지만 호주제 폐지를 위한 종교연대를 비롯, 여성 종교인들의 연대를 통한 움직임도 태동하는 추세여서 종교여성운동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전체 스님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구니 스님들, 덕과 지혜를 갖추고도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이들이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불교계도 문을 활짝 열었으면 한다.

## 성보 도난·화재발생

### 사찰주지 징계회부

해야 할 시설에 차이를 두고 있다. '가'군에 속하는 79개 사찰은 내년 7월까지 화상 감시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지정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찰로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보존사찰, 관공로 사찰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정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280여 사찰('나'군)는 2003년 7월까지 설치하면 된다. 조계종 총무원회는 이를 위해 최근 참여 업체 모집 공고를 낸 바 있다.

## 조계종 총무원 인증 방법·방화 설치업체

회사명	특징	연락처
(주)에스원	198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스템 경비 시작. 전국 규모 통신 네트워크 구축.	(02)3287-3824
(주)에스케이	1981년 설립. 시큐어 소프트 '수호신' 국내 보안업체 최초로 K4 인증.	(02)409-6915
(주)현대안전공사	2000년 설립. 침입자를 외부에서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시스템.	(02)571-0487
(주)세파치	1991년 설립. 디지털 영상 감시 시스템 구축. 사후 보상 용이.	(02)571-0487
(주)고려정보통신	1998년 설립. 이상 감지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에 통보하는 홈케어 서비스 제공.	(02)2105-0190

## 도서출판 참수행

### 고도의 참수행인의 체험담

참수행과 참수행 건강법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 참수행

이책은 고도의 참수행인이 실제 체험한 조차 연적인 삶과 참수행 방법의 모든 것을 상세하고 자세이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연계와 공존하며 사는 귀신의 세계 및 죽음의 의 세계(靈의世界)와 이 마음에 지배를 받는 육체의 고통인 질병과 정신적 고통을 마음으로 말끔이 해소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고도의 참수행인만이 원이 보고 알 수 있으며 나아가 노력 여야에 따라 육체를 초월한 초월적(마음) 참행복을 영구히 얻으며 영원하고 영구한 대자유를 얻는 목적도 수록하였습니다.

## 도서출판 참수행

TEL : 02-2244-6002 HP : 011-707-6002  
http://chamsuhaeng.pe.kr  
http://참수행  
E-mail: champyc@chamsuhaeng.pe.kr

## 목초 수액 시트

# 화제의 발 건강법



● 목초수액이란? 나무가 지하로 부터 물을 빨아 올리는 힘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뿌리로부터 수액을 빨아 올린 후로는 가는 사이에 깨끗하게 정화되어 이 원리에 의하여 발바닥에 붙여 여분의 수액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방법이다.

● 목초수액으로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  
나무의 천연성분을 본질로 만들어 발바닥과 피부에 붙여 수액을 배출 할력을 깨끗이 정화하여 몸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인체의 약 70%가 수분인데 여기 으여 된 수분을 제거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 잠자는 동안에 배출한다  
전신이 편안한 상태에서 수면중 발바닥으로 부터 노폐물의 자극전달이 제일 좋으며 낮에 활동하면서 이래로 쌓인 노폐물을 잠자는 사이에 빼내는 것이 효과적 인 방법이다. 특히 운전이 시트를 붙이면 수분의 배출을 원활히 할 수 있다.

● 21C 새로운 건강법 수액시트  
우리 몸안에 노폐물이 쌓이면 건강을 기어갈 수 없으며 우리몸에 대시기능을 발휘하여 한가위하여 인체에 쌓인 독소의 노폐물을 제거하면 우리몸의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다.

- ※ 판매처 : 담배사냥꾼, 수액사냥꾼
- ◆ 쉽게 피로해지는 분
  - ◆ 방향 서서 근무하시는 분
  - ◆ 운동선수
  - ◆ 방향 돌 컨디션이 불안한 분
  - ◆ 가정주부
  - ◆ 산후조리, 시고 저런 손발
  - ◆ 금어근 근육, 어깨, 무릎, 머리 등이 상해에 접니다.

## ◆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선물!!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Tel. 02]455-6944, 02]453-5851

##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 만삼 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양!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 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특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 만성위염이 나았다.
  - ◆ 사지 무력증이 나았다.
  -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 몸이 부기가 빠졌다.
  - ◆ 손발 저림이 없어졌다.
  - ◆ 전식이 떨어졌다.
  - ◆ 인파선이 나았다.
  - ◆ 자궁 목욕이 없어졌다.
  - ◆ 변비가 낫았다.
  - ◆ 열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산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효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쇠도하고 있습니다.

● 손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성정으로 열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5천원에 드렸었으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리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 8292, 562 - 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업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심정택)

## 간헐적 단식

첫개나무 열매로 간헐치료!  
(MBC 9시 뉴스데스크 2001년 2월 26일 보도)

간헐, 지방간, 간경화, 간암 .....

첫개나무 열매 입증 발표

2001.1.30 MBC 9시 뉴스 간질환(지방간, 간염)에 탁월한 효능 입증  
2001.1.30 SBS 8시 뉴스 간질환(지방간, 간염)에 탁월한 효능 입증  
2001.1.30 SBS 신물질 개발

숙취와 위장에 좋은 첫개나무 열매(지구자) 해장국

나현수 박사(산림청 임업연구원 박사)  
간기능을 회복시켜서 간염이나 지방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과정  
원재료 및 성분 배합 비율 : 첫개나무 열매(지구자) 95%, 줄기 2% 입 2%, 취 1% - 국내산 100%

첫개나무 열매(지구자)를 우육소 우방부제 우형가스를 특수가공 추출기로 고유의 색상과 맛을 유지하면서 성분 파괴가 되지 않도록 온도 약 100-110가 넘지 않게 6시간 이상 달여서 100mg씩 포장, 1달분 60포로 주문 판매 및 통신판매를 한다.

첫개나무 열매(지구자)  
자료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 · 문의전화 041-852-0468  
041-852-0469  
민속식품(민속농원)